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취미 활동으로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에 주목하여 여러분이 배워 볼 만한 악기를 소개하고자 ‘우쿨렐레’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쿨렐레를 모르는 분 있나요? (반응을 살핀 후) 많이 알고 계시네요. (화면 쪽을 가리키며) 제가 준비해 온 ㉠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작은 기타처럼 생긴 이 현악기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악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쿨렐레의 어원, 유래, 종류, 장점 등의 차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쿨렐레’라는 명칭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하와이어로 ‘벼룩’이라는 뜻의 ‘uku’와 ‘톡톡 튕다’라는 뜻의 ‘lele’가 결합된 명칭으로, ‘튀어 오르는 벼룩’을 의미합니다. 지금 재생되는 우쿨렐레 공연 ㉡ 영상처럼 여러 연주자들이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며 연주하는 모습이 벼룩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쿨렐레는 하와이의 민속 악기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시는 ㉢ 사진 속의 포르투갈 악기인 마체테를 받아들여 새롭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애초에 이 악기는 19세기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들여온 것으로, 당시 하와이의 왕이었던 칼라카우아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하와이의 전통 악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세기 초에는 미국 전역에, 20세기 후반에는 전 세계에 소개되며 큰 인기를 누리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우쿨렐레는 몸통의 모양과 음역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 사진처럼 몸통의 모양에 따라 파인애플처럼 둥그스름한 파인애플 형, 기타와 같은 모양인 오리지널 형, 종 모양을 닮은 벨 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음역에 따라서는 작은 몸체로 통통 튀는 매력적인 음색을 자랑하는 소프라노 형, 소프라노 형보다 커서 음역대가 넓고 음량이 더욱 풍부한 콘서트 형, 가장 큰 형태로 소리가 중후하고 울림이 큰 테너 형 등으로 나뉩니다.

이런 우쿨렐레가 특히 교육용 악기로 널리 쓰이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이는 우쿨렐레가 가진 장점들 때문입니다. 첫째, 우쿨렐레는 가격이 저렴하여 구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둘째, 우쿨렐레는 누구나 배우기 쉬운 악기입니다. 셋째, 우쿨렐레는 노래와 악기 연주를 모두 교육하기에 적합한 악기입니다. ㉤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연주자가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직접 노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발표가 우쿨렐레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배우기 쉬운 우쿨렐레로 공부에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우쿨렐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 중간에 질문을 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해야겠어.
- ②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해야겠어.
- ③ 최근의 상황을 언급하며 화제 선정의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④ 발표 내용과 관련한 제안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 ⑤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해야겠어.

2.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우쿨렐레의 각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우쿨렐레를 정면에서 찍은 큰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② ㉡: 우쿨렐레의 독특한 연주법을 보여 주기 위해 우쿨렐레와 다른 현악기의 연주 장면을 함께 제시하였다.
- ③ ㉢: 우쿨렐레의 유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쿨렐레의 기원이 된 악기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 ④ ㉣: 우쿨렐레와 기타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두 악기의 사진을 함께 제시하였다.
- ⑤ ㉤: 우쿨렐레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독주와 합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3. 다음은 학생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중1: 음역에 따른 몇 가지 우쿨렐레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 발표를 통해 몸통 모양에 따라서도 다양한 우쿨렐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몸통 모양이 다르면 연주할 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청중2: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우쿨렐레 강좌를 수강했어. 하지만 나처럼 박자에 약한 사람에게는 다루기 힘든 악기였어. 그래서 우쿨렐레가 배우기 쉬운 악기라는 말에는 공감하기 힘들었어.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은 없을까 기대했는데 거기까지 다루기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

청중3: 우쿨렐레에 관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 우쿨렐레의 몸통 모양에 따른 종류 중에서 오리지널 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걸 감안해서 연주 장면에서는 오리지널 형만 보여준 것 같아. 멋진 연주를 보여 주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짧고 소박한 연주 장면만 보여 주고 끝내버린 점은 조금 아쉬워.

- ① ‘청중1’은 발표 내용을 듣고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밝히고 있군.
- ② ‘청중2’는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지어 발표 내용에 반응하였군.
- ③ ‘청중3’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발표자의 의도를 짐작하며 들었군.
- ④ ‘청중1’과 ‘청중3’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의문을 제시하고 있군.
- ⑤ ‘청중2’와 ‘청중3’은 발표에서 기대했던 것과 관련하여 발표에서 아쉬웠던 점을 드러내고 있군.

[4 ~ 7] (가)는 활동지에 따라 진행된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신문 독자란에 투고하기 위해 찬성 측의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 다음을 바탕으로 토론해 보자.

대기 오염이 심각하여 외출하기 힘든 날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용 마스크와 공기 정화기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차량 부제 의무화에 대하여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토론 주제: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 ▶ 토론 방식: 입론(3분) → 교차질의(4분) → 반론(3분) → 평결

(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제 의무화는 대기 오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지방 자치 단체장이 명한 차량의 운행 제한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제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내뿜는 다양한 유해 가스가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중 이산화질소와 같은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 식물의 세포까지 파괴할 정도로 매우 위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차량 2,288만 대 중 80% 이상인 1,837만 대가 자가용 승용차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부제의 의무화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충분히 시행 가능하며, 지방 자치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2부제, 5부제, 10부제 등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여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들은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첫째,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기 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보다는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적으로도 대기 오염의 원인이 자동차의 배기가스만이 아니라 공장의 매연, 쓰레기 소각이나 산불로 인한 연기 등 다양하며 어떤 것의 영향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둘째, 자가용 승용차의 다수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디젤 기관보다는 유해성이 낮은 가솔린 기관을 사용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 부제의

의무화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지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 제거하기 위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생활의 불편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그들 대부분은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 그리고 그것이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자가용 승용차의 대다수가 유해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디젤 기관이 아니라 가솔린 기관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이것은 자가용 승용차가 전체 등록 차량의 80%를 넘는 1,800만 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비록 해당 대기 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미약할지라도 자가용 승용차 대수가 많기 때문에 분명 대기 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 전문가들에 견해를 따르면 가솔린 기관이 디젤 기관보다 유해성이 낮다는 명확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차량 부제의 의무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헌법 제23조 1항보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2항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물론 생업이나 사회적 약자 외에도 개인의 불가피한 사정 등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모두 자가용 승용차의 차량 부제 의무화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가)의 찬반 양측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측 모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양측은 동일한 보도 자료를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 활용하고 있다.
- ③ 반대 측과 달리 찬성 측은 문제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④ 찬성 측과 달리 반대 측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문제 현상을 살펴 자신의 논리가 타당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찬성 측은 토론의 주제가 시의적절함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측은 토론의 주제가 실현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반대 측에서 할 수 있는 ‘교차질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2018년 6월 말 현재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36,835대로 1년 만에 2.3배, 수소차는 358대로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5,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발표(2018. 7. 16.) —

- ①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자가용 승용차에 차량 부제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 ② 친환경 자동차 중 전기나 수소를 사용하는 자가용 승용차가 대기 오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 ③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차량 부제의 의무화를 일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 ④ 자가용 승용차 중 친환경 자동차를 차량 부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서 얻는 이익부터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 ⑤ 자가용 승용차 중 친환경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6. (가)의 찬성 측에서 반론을 위해 작성했던 메모 중, (나)를 쓸 때 반영하지 않은 것은?

○ 반대 측의 법적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①

○ 차량 부제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음을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해야 함. ②

○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의 원인이라고 인정한 반대 측 입장에 주목해야 함. ③

○ 입론에서 사용하였던 정보 중에서 반박의 근거로 다시 사용할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④

○ 반대 측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 중 타당성이 약한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함. ⑤

7.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개선하기’로 바꾼다.
- ② ㉡: 앞뒤 문장의 연결이 어색하므로 ‘하지만’으로 고친다.
- ③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④ ㉣: 조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문가들의’로 고친다.
- ⑤ ㉤: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8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교 신문 편집부의 요청 사항]

교내에서 열리는 ‘디카시 쓰기 대회’와 연관 지어 학생들에게 디카시를 소개하는 글을 써 주세요. ㉠

[예상 독자에 대한 분석]

- 디카시의 개념과 특성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
- 디카시의 창작 과정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초고]

다음 달에 우리 학교에서 ‘디카시 쓰기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그런데 아직 디카시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번 학교 신문의 ‘집중 탐구’ 연재란에서는 디카시의 개념, 특성, 창작 과정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디카시는 ‘디지털 카메라’와 ‘시(詩)’의 합성어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포착한 시적 형상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후 그 피사체와 관련된 감흥을 문자로 표현한 시를 뜻합니다. 기존의 시가 문자로 표현된 예술이라면, 디카시는 사진과 문자가 하나의 텍스트로 엮이는 새로운 시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디카시 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수련잎 초등학생들이
교문을 빠져나오며 하고 중입니다.
등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누가 듣든 말든
입을 벌리고 종알거립니다.
— 공광규, 「수련잎 초등학생」—

위의 사진을 보면, 수련잎의 모양은 아이들이 깔깔깔 웃거나 재잘거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즉, 이 디카시는 수련잎의 모양을 보고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려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동심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카시는 기존의 문자시와 달리 사진 이미지와 언어 표현을 절묘하게 연결하여 사람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 줍니다. 그리고 내용의 이해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기존의 문자시 감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에 대한 흥미도 길러 줍니다.

그렇다면 디카시는 어떤 창작 과정을 거칠까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문자시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두고 ‘착상, 성장(착상의 발전), 초고, 퇴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씁니다. 반면에 디카시는 착상에서 초고까지 한 번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후 퇴고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디카시 시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눈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찍고 그것을 SNS상에 올리면서 몇 글자를 덧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과정을 떠올려 보면 착상부터 초고까지의 과정이 압축적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디카시를 쓸 때는 글쓴이가 착상의 발전을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자연이나 사물을 관찰할 때 찰나에 일어나는 감흥을 살려 사진과 글로 담아내는 순간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자시를 쓸 때는 착상 이후에 책상에 앉아 쓰는 과정이 중요하다면, 디카시를 쓸 때는 순간적인 감흥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A]

8. ㉠ ~ ㉣을 고려하여 [초고]를 작성했다고 할 때,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학교 신문에서 디카시를 다루게 된 계기를 언급하며 글을 시작한다.
- ② ㉡을 고려해 디카시의 어원을 밝히면서 그 개념을 정의한다.
- ③ ㉢을 고려해 실제 디카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디카시의 특성을 설명한다.
- ④ ㉣을 고려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디카시 창작 과정의 순차성을 강조한다.
- ⑤ ㉣을 고려해 기존의 문자시 창작 과정과 비교하여 디카시 창작 과정의 특성을 부각한다.

9.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가) 시의 내용 이해 정도에 대한 설문 조사

구분	기존의 문자시			디카시		
	잘됨	보통	안됨	잘됨	보통	안됨
결과	15%	26%	59%	56%	26%	18%

- □□□ 청소년 문예 잡지 -

(나) 선생님 인터뷰

대체적으로 기존의 문자시는 여러 문학적 장치부터 작가의 생애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디카시는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문자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먼저 디카시를 공부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다) 신문 자료

뉴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시 예술도 영상과 사진을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사진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환경에서,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훌륭한 문학 갈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신문 -

- ① (가)를 활용하여 디카시가 기존의 문자시에 비해 이해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줘야겠어.
- ② (나)를 활용하여 기존의 문자시를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③ (다)를 활용하여 디카시가 등장하게 된 계기를 매체 환경의 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해야겠어.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디카시가 시 감상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부각해야겠어.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디카시 창작으로 새로운 문학 갈래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10. [A]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조 건 >

글의 흐름을 감안하되, 비유적 표현과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고, 디카시 창작을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디카시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카시 창작에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 ②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손가락으로 그 순간을 남겨 보세요. 지금부터 디카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 ③ 디카시 창작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디카시 감상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시 창작의 지름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 ④ 디카시로 순간적인 감흥을 포착하여 삶의 위안을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디카시 감상으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⑤ 여러분도 디지털 카메라와 순간적인 감흥만 있으면 누구나 디카시를 창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보물을 캐내러 교실 밖으로 나가 볼까요?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의 언어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 ~ (3)과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 (1) ㄱ. 손이 크다.
 ㄴ. 차를 사다.
- (2) ㄱ. 예쁜 민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ㄴ. 나는 철수와 영희를 달랬다.
 ㄷ.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강을 더 좋아한다.
- (3) ㄱ.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ㄴ. 포수 세 명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첫째, ‘어휘적 중의성’은 문장에 사용되는 어휘의 특성에 따라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를 통해서 실현된다. (1ㄱ)은 ‘손’이 ‘신체 부위’나 ‘썸썸이’와 같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의어’에 따른 중의성에 해당한다. (1ㄴ)의 ‘차’는 ‘엔진이 달린 탈것[車]’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녹차나 홍차와 같이 ‘마시는 음료[茶]’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1ㄴ)은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에 따른 중의성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구조적 중의성’은 어떤 문장이 둘 이상의 통사적 관계를 가진 문장 구조로 분석되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수식 관계’, ‘접속 구문’, ‘비교 구문’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 (2ㄱ)은 ‘수식 관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로, ‘예쁜’이 ‘민지’를 수식할 수도 있고 ‘목소리’를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2ㄴ)은 ‘접속 구문’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내가 ‘철수와 영희’ 둘 다 달렸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내가 철수와 함께 ‘영희’를 달렸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2ㄷ)은 ‘비교 구문’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행위의 주체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을 놓고 그 선호도를 비교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버지가 행위의 대상인 ‘어머니와 강’을 놓고 그 선호도를 비교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셋째, ‘작용역’의 중의성’은 하나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작용역이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 표현’, ‘수량 표현’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 (3ㄱ)은 ‘부정 표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않았다’가 부정하는 것이 ‘나’인지, ‘어제’인지, ‘그녀’인지, ‘만나다’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 되었다. (3ㄴ)은 ‘수량 표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즉, 포수 세 명이 합쳐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포수 세 명 각자가 사슴 한 마리씩을 잡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의적 표현은 광고나 유머 등에서 표현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의적 표현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중의성을 띠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첨표를 사용하거나, 어순, 단어, 조사 등을 바꾸거나, 단어나 조사를 추가하면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

* 작용역 : 어떠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1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표현 의도에 따라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② 동음이의어에 따른 중의성은 한자어 표기를 병행하여 해결할 수 있다.
 - ③ 둘 이상의 수식어가 하나의 피수식어를 수식할 때 구조적 중의성이 발생한다.
 - ④ 수량 표현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둘 이상이 되면 작용역의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
 - ⑤ 비교 구문에서 특정 부분이 행위의 주체도 될 수 있고 행위의 대상도 될 수 있을 때 중의성이 발생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의적인 문장	해소 방법	고친 문장
길이 없다.	단어 바꾸기	㉠
착한 주희의 동생을 만났다.	어순 바꾸기	㉡
나는 영호와 민주를 보았다.	첨표의 사용	㉢
회원들이 다 오지 않았다.	조사의 추가	㉣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한다.	단어의 추가	㉤

- ① ㉠ : 도로가 없다.
- ② ㉡ : 주희의 착한 동생을 만났다.
- ③ ㉢ : 나는, 영호와 민주를 보았다.
- ④ ㉣ : 회원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 ⑤ ㉤ :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한다.

13.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음운의 변동은 발음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 축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양상을 설명해 볼까요?

나는 어제 사 온 책을 읽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목차만 훑고서 사 온 책은 기대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장시간 책을 봐서인지 머리가 아팠다. 그러나 예삿일로 생각해 어머니께서 챙겨 주신 알약을 먹지 않고 있다가 결국 몸살을 앓았다.

- ① ‘읽느라[잉느라]’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② ‘훑고서[홀꼬서]’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③ ‘예삿일[예산닐]’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④ ‘알약을[알라글]’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⑤ ‘앓았다[아란따]’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14. <보기>의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접두사는 단어의 앞에 붙어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 ㉠ 접두사가 명사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도 있고, ㉡ 접두사가 용언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도 있다. ㉢ 특정한 접두사는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대개의 접두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만, ‘찰-/차-’가 붙어 만들어진 ‘찰옥수수’, ‘차조’처럼 ㉣ 주위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른 접두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도 있다.

- ① ㉠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군기침, 군살’이 있다.
- ② ㉡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빗나가다, 빗맞다’가 있다.
- ③ ㉢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헛디디다, 헛수고’가 있다.
- ④ ㉣, ㉤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로는 ‘새빨갳다, 셋노랑다’가 있다.
- ⑤ ㉤, ㉥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로는 ‘수평, 솟양’이 있다.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1 > —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

- **주체 높임법** :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주체 높임법은 주로 선어말 어미 ‘-시-/~샤-’를 통해 실현된다. 또한 특수 어휘나 조사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 **객체 높임법** :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객체 높임법은 주로 선어말 어미 ‘-습-/~줍-/~습-’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특수 어휘나 조사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 < 보기 2 > —

㉠ 世尊(세존)스 安否(안부) 묻좁고 니르샤되 므스므라 오시니잇고
[A] [B]

[세존의 안부를 여쭙고 이르시되 무슨 까닭으로 오셨습니까?]

㉡ 네 아드리 各各(각각) 어마님내 피습고
[네 아들이 각각 어머니를 모시고]

- ① ㉠의 [A]에서 주체 높임은 실현되었으나 그 주체가 생략되었다.
- ② ㉠의 [A]에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 ③ ㉠의 [B]에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에서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들’을 존대하였다.
- ⑤ ㉡에서는 객체인 ‘어마님’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다.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릭 번이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은 심리 치료 및 상담에 널리 활용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들로 ‘자아상태’와 ‘스트로크’가 있다.

자아상태 모델은 인간의 성격을 A(어른), P(어버이), C(어린이)의 세 가지 자아상태로 설명하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세 가지 자아상태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이때 자아상태란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 사고, 감정의 총체를 일컫는 것이므로 특정 순간마다 자아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김 군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며 차를 몰고 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든다. 뒤따르는 차가 없는 것을 얼른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면한다. 이때 김 군은 ‘A 자아상태’에 놓여 있다. A 자아상태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자아상태이다.

끼어들었던 차가 사라지자 김 군은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런 운전자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해!”라고 말한다. 이때 김 군은 ‘P 자아상태’로 바뀐 것이다. P 자아상태는 자신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보살피려 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아상태로서,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이나 태도, 사고를 내면화한 것이다. 어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통제했던 부모의 역할을 따라하고 있다면 ‘CP(통제적 어버이)’ 상태, 따뜻하게 배려하고 돌봐 주었던 부모처럼 남을 돌봐 준다면 ‘NP(양육적 어버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잠시 후 김 군은 직장 상사와의 약속에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다. 이때 김 군은 학창 시절에 지각하여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까 겁을 먹었던 기억이 되살아나 ‘C 자아상태’로 이동한 것이다. C 자아상태는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자아상태이다.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던 행동 양식들을 재연할 경우를 ‘AC(순응하는 어린이)’ 상태, 부모의 요구나 압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했던 어린 시절의 방식대로 행동할 경우를 ‘FC(자유로운 어린이)’ 상태라고 한다.

세 가지 자아상태 중 어느 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상대방도 어느 한 상태에서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인정의 욕구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행위를 ‘스트로크(stroke)’라 부르는데, 스트로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언어로 신호를 보내는 언어적 스트로크와 몸짓, 표정 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비언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 스트로크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다. 끝으로 “일을 참 잘 처리했더군.”과 같이 상대방의 행위에 반응하는 조건적 스트로크와 “난 당신이 좋아.”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존재 그 자체에 반응하는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 원하지만,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얻으려고 한다. 어떤 스트로크든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스트로크를 받게 되면, 그 스트로크를 계속 받기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강화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정립된 교류 분석 이론은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관련지어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16.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론이 정립된 과정을 소개하고, 각 단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이론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론이 지니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④ 이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이론의 타당성을 사례를 들어 검증하고 있다.
- ⑤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요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사람의 자아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스트로크는 상대방을 인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이다.
- ③ 인간은 부정적 스트로크보다는 무관심과 무반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세 가지의 자아상태 중 한 가지라도 결핍되면 건강한 성격이라 볼 수 없다.
- 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자아상태의 반응이 올 수도 있다.

※ <자료>를 바탕으로 18, 19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자 료 >

<상황 1>

아버지: ㉠(차가운 말투로) 너 할머니께 아까 보인 태도가 뭐냐? 좀 더 예의를 갖추 수 없어?
 철호: (머리를 떨구며) 죄송해요.

<상황 2>

철호: (냉담하게) 너 아까 부장님께 너무 버릇없이 굴었어. 앞으로는 더 예의를 갖추도록 해.
 후배: (당황하면서) 그런가요? 제 나름대로는 예의를 보인 것인데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상황 3>

상담사: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고민이시군요.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 보죠. 우선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혹시 당신의 부모님은 엄격한 편이셨나요?
 철호: 예. 제 아버지는 어릴 때 제가 조금이라도 버릇없이 굴면 늘 질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상담사: 많이 힘들었겠군요. 그런데 어릴 때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였겠죠?
 철호: 그럴 수밖에요. 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른들께 예의바르게 인사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인사를 잘하기 위해 애를 썼었습니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적, 긍정적, 조건적 스트로크이다.
- ② 언어적, 부정적, 조건적 스트로크이다.
- ③ 언어적, 부정적, 무조건적 스트로크이다.
- ④ 비언어적, 긍정적, 무조건적 스트로크이다.
- ⑤ 비언어적, 부정적, 무조건적 스트로크이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상황 1>과 관련지어 볼 때 <상황 2>의 철호는 CP 상태에서 후배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군.
- ② <상황 2>에서 철호의 자아상태와 후배의 자아상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상황 3>에서 상담사는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A 자아상태라고 할 수 있군.
- ④ <상황 3>에서 상담사의 두 번째 질문은 철호의 FC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상황 3>에서 철호의 말을 통해 그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인사하는 행동을 강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20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동림산업은 제복을 제정하려고 준비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직원들은 반대하지만 준비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제복 제정을 결정하고, 회사는 재단사를 불러 직원들의 치수를 재며 제복 도입을 강행한다.

“거기 있을 줄 알았지. 나야, 장이야. 우기환이도 같이 있나?”
전화를 받자마자 장상태가 낮고 빠른 말씨로 지껄어왔다.

“즉각 들어와 줘야겠어. 과장이 잔뜩 뿔따구가 나갔구 방금 사장실로 들어갔어.”

“재단사들은 다 철수했나?”

“아직 다른 사무실을 돌고 있어. 그 친구들이 철수하기 전에 자네가 들어와야 일이 무사해질 것 같애.”

“지금은 들어가고 싶잖아. 친구가 찾아와서 잠깐 외출했다고 그래.”

“재는 거야 상관없잖아. ㉠ 입고 안 입는 건 그 후의 일인데 뭘 그래.”

민도식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참 만에 민 선생을 찾는 전화가 다시 왔다.

“과장일세. 자네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알고나 그러나?”

수화기에서 대뜸 불호령이 떨어졌다.

“자네들이 이번 일에 비협조적이란 걸 알고 있어. 뒷전으로 돌면서 불평이나 터뜨리고 다니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나?”

과장은 계속해서 닦아세웠다.

“이 전화 끝나자마자 사장실로 가봐! 나하곤 이미 용무가 끝났어!”

사장은 전혀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맞은편 소파에 앉는 두 사원을 응접세트 너머로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들이 의복에 관해서 일가견을 가졌다는 소문인데, 어디 그 견해 좀 듣세나.”

(중략)

“자네들이 이렇지 않아도 난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우 군이 K직물을 동경하는 그 심정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을 동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하고 자네들도 적극 협조해야 되잖겠나. 그동안을 못 참아서 협조할 수 없다면 별 수 없지. ㉡ 이런 일엔 누군가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희생이 되죠. 피고용자한테도 권리는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 맘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제 맘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기환이가 분연히 소파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도어를 향해 갔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사장실을 나서는 우기환이와 엇갈려 웬 사내가 쩍싸게 뛰어들었다. 다방에서 두 번 본 적이 있는 생산부의 잡역부 권 씨였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 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 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두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 오게, 권 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채 닫히기 전에 사장의 꺾꺾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었다.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반테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구 아침 일찍 출근했다구요.”

아내의 바가지 굵는 소리로 창업 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몽그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움을 느꼈다.

—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나)

S# 29. 현의 집

현을 끌고 오는 고 영감. 끌려오며 무어라고 잘못했다고 비는 현. 마당에 나뭇가지를 말리던 현 모 의아해 일어난다.

고 영감: (들어서며 대뜸) 너 야 앞에서 푹푹히 말하거라. 현이 애비가 왜 죽었느냐?

현 모: 무슨 말씀이신지 전…….

고 영감: 그게 훌륭한 죽음여? 그래서 철없는 자식헌티도 애비처럼 죽으라구 부추기는 거여?

현 모: 아버지님 고정하시고…….

고 영감: 그 따위로 자식을 키우려거든 당장 오늘이라도 현인내가 데려가서 키울란다.

현: 싫어. (할아버지 손을 탁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현 모: ……., 제가 잘못했습니다. 허지만 현이 아버지 죽음을 못난 죽음이라고는 말어 주세요.

고 영감: (조금 누그러지며) 지금 세상에 푹푹현 놈 잘 되는 것 없어. 남이야 뭐라던 그저 죽어지내는 게 절 보존하는 거여……. 너도 명심허고 애를 그렇게 키워.

(중략)

S# 36. 교정

현이 가방 들고 나온다. 문득 멈춘다. 학교 직원실 건물 쪽에서 한 떼의 학생들. 창백한 얼굴, 도수 높은 근시 안경의 M 선생을 고등계 형사 두 명이 연행해 가고 있다. 학생들이 수군거린다.

E* : 어떻게 된 거야?
E : 모종의 독서회를 열었고, 학생들에게 독립 사상을 주입시킨 혐의래.
태연히 냉소마저 머금고 지나치는 M 선생. 현과도 시선이 마주친다. 이상하게 흠칫 뒤로 물러서는 현.
M 선생 : 공부를 잘해라.
지나치며 한마디 한다. 착잡한 시선으로 뒷모습 바라보는 현. 다시 교문을 향해 걸어 나가는데. “어이, 현아.” 저쪽 나무 그늘 아래 또 한 때 웅성대던 학생들 중에 연호가 부른다.
현 : 연호, 너 안 갈래?
연호 : 잠깐 와 봐.
그쪽으로 가는 현. 그쪽의 학생들 얼굴이 웬지 긴장해 있다. 그들 현을 자세히 본다. 약간 굳어지는 현.
민영 : (나서며) 현은 우리의 뜻을 알 거다.
현 : (어리둥절) 무슨 뜻?
민영 : 현의 아버지는 삼일 혁명 당시 훌륭한 죽음을 하셨으니까.....
현 : (흠칫. 무슨 뜻인지 안다.)
민영 : 아침에도 오 학년 학생 들이 끌려갔어..... 또 끌려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중단할 수 없어.
현 : (주저)
민영 : 잡혀간 철웅이 아버님이 주재소로 끌려가 매를 맞고 돌아와서 돌아가셨대..... ㉔ 너의 아버진 우리의 우상이야. 너도 우리와 뜻을 같이해 주어.
현 : (입술이 탄다.)
연호 : (두둔하며) 현은 말 안 해도 우리의 뜻을 알아.
현 : (당황) 아니 그보다.....
민영 : 그보다 뭐야?
현 : 우리가 비밀 운동이나 조직한다구 무어가 달라질까?
민영 : 뭐?
현 : 글썄..... 우리들 힘이나 잡혀간 M 선생님의 힘으로 뭐가 거대한 것이 달라질까 말이야.....
민영 : (발끈) 그렇다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수동적이어야만 하니.
현 : (우물쭈물) 글썄..... 난 당장 해야 할 숙제나 시험만 해도 과중해서.....
일순 굳어지는 야릇한 공기.
현 : 미안해.....
돌아서 간다.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
민영 : 비겁한 자식. (웁찔 멈춰 서는 현.)
연호 : (변명하며) 아냐. ㉕ 현이는 홀어머니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없어.
— 선우휘 원작, 이은성·윤삼육 각색, 「불꽃」 —
* E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③ 과거 장면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한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시대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서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소설과 시나리오에서 세계에 대응하는 자아의 양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 세계의 횡포에 좌절하거나 순응하는 자아도 있고, ㉡ 쉽사리 세계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는 자아도 있다. 한편 위의 두 자아가 한 인물 내에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 ① (가)의 ‘아내’가 장 선생은 ‘유니폼 입’고 ‘일찍 출근했다’며 재촉하는 것은 ㉠, (나)의 ‘현 모’가 남편의 죽음을 ‘못난 죽음이라고는 말’라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의 양상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장상태’가 ‘즉각 들어오’라며 과장이 ‘방금 사장실로 들어갔’다고 전화한 것과 (나)의 ‘고 영감’이 ‘죽어지내는 게 절 보존하는 거’라 여기는 것은 모두 ㉠의 양상으로 볼 수 있군.
- ③ (가)의 ‘우기환’이 ‘나갈 때는 제 맘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라며 일어난 것과 (나)의 ‘민영’이 ‘언제까지나 수동적이어야만 하니.’라며 반문한 것은 모두 ㉡의 양상으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민도식’이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대거리하면서도 집을 나서 체육대회 장소로 가는 것은 ㉠과 ㉡가 공존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군.
- ⑤ (나)의 ‘현’이 ‘우리들 힘’으로 ‘뭐가 거대한 것이 달라질까’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것은 ㉠에서 ㉡로 전환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군.

22. <보기>는 (나)의 S# 36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 부분이다. 이 부분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들려오는 사건의 내용은 M 선생이 주최하여 몇 명의 학생이 불온한 독서회를 열었고, 모종 과격한 행동까지 피했다는 것이었다. 현은 어느 때가 R한테서 그런 권유를 받은 일이 있었으나 당장 해야 할 숙제나 시험만 해도 자기에겐 과중하다고 거절했던 일을 생각했다. 끌려간 M 선생은 학생들의 은근한 여론 속에서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다. 더욱 옥중에서 쪽지를 보내 학생들을 격려했다는 소문은 어쩔 수 없는 흥분의 도가니를 이루게 했다.

- ① 진행되는 M 선생과 현이 마주치는 장면을 삽입한다.
- ② M 선생이 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대사로 제시한다.
- ③ M 선생이 진행되는 이유는 효과음을 사용해 드러낸다.
- ④ M 선생이 옥중에서 보낸 쪽지와 관련된 내용은 생략한다.
- ⑤ 권유를 받은 현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지시문으로 추가한다.

23. (가)에 대해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이 작품의 제목은, 중심 소재인 ‘옷’이 가지는 상반된 의미를 통해 주제 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민도식’이 한 아래의 말을 참고하여 제목의 의미를 이해해 보자.

“옷에는 보호 기능과 표현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옷에서 바랄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 기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복으로 사원들 간에 일체감을 조성해서 회사를 더욱 더 발전시키겠다고 그러시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단결력보다는 제복에 눌러서 개성이 위축되고 단결력에 밀려서 자유로운 창의력이 퇴보되는 데서 오는 손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 ① 옷이 조직원을 단결시킬 때는 ‘날개’이지만, 조직원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수갑’이겠군.
- ② 옷이 개성을 표출하게 할 때는 ‘날개’이지만, 창의력을 퇴보시킬 때는 ‘수갑’이겠군.
- ③ 옷이 새로운 기능을 할 때는 ‘날개’이지만, 기존의 기능을 할 때는 ‘수갑’이겠군.
- ④ 옷이 조직을 발전시킬 때는 ‘날개’이지만, 조직을 일체화할 때는 ‘수갑’이겠군.
- ⑤ 옷이 표현 수단일 때는 ‘날개’이지만, 보호 수단일 때는 ‘수갑’이겠군.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하며 회유하고 있다.
- ② ㉡: 제복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 ③ ㉢: 사장을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권 씨를 제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 ④ ㉣: 현을 설득하기 위해 현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현의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25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래의 유전형 몸매나 북극곰의 흰색 털처럼 주어진 환경에 어울리는 생물학적 ‘적응’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그 해답으로 제시하였다. 개체*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전적 변이만을 여러 세대에 걸쳐 우직하게 골라내는 자연선택의 과정이 결국 환경에 딱 맞는 개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다윈은 자연선택이 각

개체의 적합도(fitness), 즉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자신은 번식을 하지 않으면서 집단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일벌이나 일개미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윈은 그와 같은 경우 집단의 번성에 이득을 주므로 자연선택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자연선택이 개체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그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윌리엄 해밀턴은 다윈 이론의 틀 안에서 일벌이나 일개미와 같은 개체의 이타적 행동이 자연선택 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다윈 시대에는 없던 ‘유전자’ 개념을 진화 이론에 도입함으로써,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는 낮추면서 상대방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이타적 행동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결국은 개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됨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다윈이 정리한 자연선택의 과정을 해밀턴은 각 개체가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때 행위 당사자인 개체는 자기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임으로써 직접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도 있지만,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상대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도 있다. 쉽게 설명하면, 철수는 스스로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써 직접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도 있지만,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동생 영수가 자식을 많이 낳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해밀턴은 전자는 ‘직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후자는 ㉡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설명하며, 개체의 자연선택은 두 적합도를 합한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해밀턴에 따르면 이타적 행동 또한 개체의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타적 행동은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인 직접 적합도를 낮추게 되므로 그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간접 적합도를 높일 수 있어야 자연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개체 자신이 남기는 유전자 복제본에 대한 손실보다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상대방을 통해 남기는 유전자 복제본에 대한 이득이 더 클 때 이타적 행동은 선택되는 것이다.

이때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유전적 근연도’라 하는데, 유전적으로 100% 같은 경우는 유전적 근연도가 1이 된다. 유전적 근연도의 값이 클수록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체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진다.

이를 바탕으로 해밀턴은 아래와 같은 ‘해밀턴 규칙’을 도출하였다.

$$rb > c \text{ (단, } b > c > 0 \text{으로 가정함.)}$$

[A] 즉, 이타적 행동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얻는 이득(b)이 충분히 커서 1보다 작은 유전적 근연도(r)를 가중하더라도 개체가 감수하는 손실(c)보다 클 때 선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밀턴의 규칙은 이득, 손실, 유전적 근연도의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이타성이 진화하는 조건을 알려 준다.

해밀턴의 ‘포괄 적합도 이론’은 다윈의 이론을 발전시켜 이타성이 왜 진화했는지를 매끄럽게 설명함으로써 진화생물학자들이 이타적 행동에 대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자연선택이 유전자의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이후 진화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다.

* 개체 :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

25.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화생물학의 발전 과정
－ 적합도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 ② 해밀턴 규칙의 성립 조건
－ 유전자, 개체, 집단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 ③ 자연선택을 통한 생물학적 적응
－ 유전적 근연도 값을 중심으로
- ④ 포괄 적합도 이론의 의의와 한계
－ 진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 ⑤ 이타적 행동이 자연선택 되는 이유
－ 해밀턴의 이론을 중심으로

2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 것은 자연선택의 결과이다.
- ② 유전적 근연도는 두 개체 간에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의미한다.
- ③ 개체의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유전적 변이는 자연선택에서 도태된다.
- ④ 해밀턴은 다윈이 살았던 시기에는 없었던 개념을 적용하여 이타적 행동의 진화를 설명하였다.
- ⑤ 진화생물학자들은 이타성이 진화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여 해밀턴의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27. [A]를 바탕으로 할 때,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두 개체 사이의 유전적 근연도가 (㉠), 손실에 비해 이득이 (㉡) 이타적 행동은 선택되기 (㉢).

- | | ㉠ | ㉡ | ㉢ |
|---|------|------|-----|
| ① | 낮을수록 | 작을수록 | 쉽다 |
| ② | 낮을수록 | 클수록 | 어렵다 |
| ③ | 높을수록 | 작을수록 | 쉽다 |
| ④ | 높을수록 | 클수록 | 쉽다 |
| ⑤ | 높을수록 | 작을수록 | 어렵다 |

28. <보기>를 참고하여 [일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성 염색체에 의해 성이 결정되는 사람과 달리, 벌은 염색체 수에 의해 성이 결정된다. 한 짝의 염색체를 가지면 수컷, 두 짝의 염색체를 가지면 암컷이 된다. 암컷들은 수벌에게서 받는 한 짝의 염색체를 공유하고, 나머지 한 짝은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두 짝의 염색체 중에서 하나를 물려받는다. 암컷은 발육 과정에서 여왕벌과 일벌로 분화되는데, 그중 일벌은 번식을 포기하고 평생 친동생을 키우며 산다.

- ① 일벌들 간의 유전적 근연도는 1이다.
- ② 일벌의 직접 적합도는 0으로 볼 수 있다.
- ③ 일벌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타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④ 일벌의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일어난다.
- ⑤ 일벌이 친동생을 키우는 것은 결국 개체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2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 수준의 자연선택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 ② 행위 당사자와 상대방의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 ③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 ④ 행위 당사자의 번식 성공도와 상대방의 번식 성공도는 무관하기 때문에
- ⑤ 다음 세대에 남기는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 개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30. 밑줄 친 단어 중,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사람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다.
- ② 자동차가 지나가자 흙먼지가 일어났다.
- ③ 한류 열풍이 새로운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 ④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큰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유백로는 조은하에게 백학선(백학이 그려진 부채)을 주며 결혼을 약속한다. 유백로는 조은하를 보호하기 위해 가달과의 전쟁에 원수로 출전하였으나, 간신 최국냥이 군량 보급을 끊어 적군에 사로잡힌다. 태양선생과 충복의 도움으로 유백로의 소식을 접한 조은하는 황제 앞에서 능력을 증명하고 정남대원수로 출전한다. 가달과 대결하던 중 조은하는 선녀가 알려 준 백학선의 사용 방법을 떠올린다.

원수가 말에서 내려 하늘에 절하고 주문을 외워 백학선을 사면으로 부치니 천지가 아득하고 뇌성벽력이 진동하며 무수한 신장(神將)이 내려와 도우니 저 가달이 아무리 용맹한들 어찌 당하리오? 두려워하여 일시에 말에서 내려 항복하니 원수가 가달과 마대영을 마루 아래 꿰리고 크게 꾸짖어,

“네가 유 원수를 모셔 와야 목숨을 용서하려니와, 그렇지 않은즉 군법을 시행하리라.”

하니, 가달이 급히 마대영에게 명하여 유 원수를 모셔오라 하거늘 마대영이 급히 달려 유 원수 있는 곳에 나아가,

“원수는 저의 구함이 아니련들 벌써 위태하셨을 터이니 저의 공을 잊지 마소서.”

하고 수레에 싣고 몰아가거늘 원수가 아무런 줄 모르고 마루 아래 다다르니 한 소년 대장이 맞이하여,

“낭군이 대대 명가 자손으로 이렇듯 곤함은 모두 운명이라. 안심하여 개의치 마소서.”

하거늘, 유 원수가 눈을 들어본즉 이는 평생에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라. 손을 들어 칭찬하며,

“뉘신지는 모르거니와 뜻밖에 죽어 가는 사람을 살려 본국 귀신이 되게 하시니 [㉠]이오나, 이제 패군한 장수가 되어 군부(君父)를 욕되게 하오니 무슨 면목으로 군부를 뵈오리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죄를 갚을까 하나이다.”

원수가 재삼 위로하며,

“장수 되어 일승일패(一勝一敗)는 병가상사(兵家常事)*이오니 과히 번뇌치 마소서.”

유 원수가 예를 갖추어 인사하더라. 가달과 마대영을 죄인이 타는 수레에 싣고 회군할 새 먼저 승전한 첩서*를 올리고 승전고를 울리며 행군하는데 유 원수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조 원수가 묻기를,

“장군이 이제 사지(死地)를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오시니 다행하거늘 어찌 이렇듯 수척하신지요?”

원수가 탄식하며,

“제가 불충불효한 죄를 짓고 돌아오니 무엇이 즐거우리이까? 원수가 이렇듯 걱정하시니 황궁 불안하여이다.”

조 원수가 짐짓 묻기를,

“듣자온즉 원수가 일개 여자를 위하여 자원 출전하셨다 하오니 이 말이 옳으니이까?”

유 원수가 부끄러워하며 대답이 없거늘 조 원수가 또 묻기를,

[A] “장군이 전에 길에서 일개 여자를 만나 백학선에 글을 써 주었더니 그 여자가 장성하여 백년을 기약하나 임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면으로 찾아 서주에 이르러 장군의 비문을 보고 기절하여 죽었다 하오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유 원수가 듣고서 비참하여 탄식하기를,

“제가 군부에게 욕을 끼치고 또 여자에게 원한을 쌓게 하였으니 내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이다.”

원수가 미소하고 백학선을 내어 부치거늘 유 원수가 이윽고 보다가 묻기를,

“원수는 그 부채를 어디서 얻었나이까?”

원수가 대답하기를,

“제 조부께서 상강현령으로 계실 때에 용왕의 현몽을 받고 얻으신 것이오니다.”

유 원수가 다시 묻지 아니하고 내심 헤아리기를, ‘세상에 같은 부채가 있도다.’하고 재삼 보거늘 원수가 이를 보고 참지 못하여,

“장군이 정신이 가물거려 친히 쓴 글씨를 몰라보시는도다.”

하고 부채를 유 원수 앞에 놓으니 유 원수가 비로소 조 소저인 줄 알고 비회를 이기지 못하여 나아가 그 손을 잡고

[B]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하리로다. 나는 대장부로 불충불효를 범하고 몸이 죽을 곳에 들었으되 그대는 규중 여자로 출전입공(出戰立功)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니 가히 규중 호걸이로다.”

하며 여취여광(如醉如狂)*하거늘 조 소저가 또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나 군중이라 말쑥할 곳이 아니오, 황상이 기다리심을 생각하고 행군을 재촉하니라.

위수에 이르러 용신(龍神)께 제사하고 3만 군 혼백을 위로한 후 사당을 지어 사적(事績)*을 기록하고 농토를 나누어주고 철마다 제사를 받들고 장졸을 놓아 보내어 말하기를,

“돌아가 부모처자를 만기라.”

하고 남은 군졸을 거느려 행하여 아미산에 이르러서 유 원수의 선산(先山)에 성묘하고 전날 주인과 이웃을 모아 옛일을 이르며 금을을 흠어주고 태양선생을 찾아 전날 베푼 덕택을 사례한 후 늙은 중 충복을 찾아 천금을 상사*한 후 서울로 향하니라.

조 원수가 표(表)를 올리기를,

“정남대원수 조은하는 돈수백배*하옵고 천자께 올리나니 신첩이 폐하의 특은을 입어 한 번 복을 올려 오랑캐를 소멸하옵고 유 원수를 구하오니 신첩의 외람하온 죄를 거의 갚을 듯 하옵니다. 어전에 보고하올 일이 급하오니 조상 분묘를 수리하고 죄를 기다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상이 다 읽으시고 칭찬하여,

“기특하도다. 조은하는 규중여자로 출전입공함은 고금에 회한한 일이로다.”

하시고 최국냥은 허리를 베어 죽이라 하시며 그 가족을 귀양 보내라 하시었다.

— 작자 미상, 「백학선전」 —

* 병가상사: 전쟁에서 흔히 있는 일

* 첩서: 보고하는 글

* 여취여광: 이성을 잃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적: 일의 실적이나 공적

* 상사: 칭찬하여 상으로 물품을 내려 줌

* 돈수백배: 머리가 땅에 닿도록 계속 절을 함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서사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ㄴ.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ㄷ.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ㄹ.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32. [A]와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의 잘못을 꾸짖고 있으며, [B]는 상대를 위로하고 있다.
 ② [A]는 상대의 속마음을 떠보고 있으며, [B]는 상대를 칭송하고 있다.
 ③ [A]는 상대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으며, [B]는 상대를 치하하고 있다.
 ④ [A]는 상대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B]는 상대를 회유하고 있다.
 ⑤ [A]는 상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B]는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백학선전」은 결혼을 약속한 남녀 주인공이 고난을 이겨내고 재회하는 애정소설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남성 중심의 사회적 규범을 극복한 여자 주인공이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여성영웅소설의 성격도 지닌다. 「백학선전」은 백학선이라는 소재에 다양한 서사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두 가지 성격을 유기적으로 구현했지만, 여자 주인공을 예외적인 존재로 그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 ① 조은하가 오랑캐를 물리친 것에서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② 황상의 말을 통해 조은하를 예외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유백로와 조은하가 백년을 기약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는 점에서 애정소설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군.
 ④ 조은하가 공적을 세운 후 황상에게 죄를 기다린다고 한 점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적 규범을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군.
 ⑤ 조은하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유백로가 조은하를 알아보는 것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백학선의 서사적 기능을 알 수 있군.

3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골난망(白骨難忘) ② 사면초가(四面楚歌)
 ③ 어부지리(漁夫之利)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이
 └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B]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C]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D] 힘을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E]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
 ┌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 이성부, 「산길에서」 —

(나)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을 제시하여 대상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나)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36.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 지각하고 있다.
- ② [B]: 삶의 고달픔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깨닫고 있다.
- ③ [C]: 집을 버리고 산길을 찾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 ④ [D]: 사람은 누구나 삶의 자취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⑤ [E]: 산길을 걷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다짐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는 ‘길’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는 화자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자기 탐색과 성찰을 통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① 굳게 닫힌 ‘쇠문’을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군.
- ② 길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는 것은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의미하겠군.
- ③ ‘눈물짓’는 행위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부끄럽게’를 통해 화자가 하늘을 보며 자기 성찰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담 저쪽’의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이겠군.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물가지수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를 일컫는다. 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해서 비교 시점의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테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지수가 115라면 이는 기준 시점보다 물가 수준이 15%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구한다. 이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지수부터 구하게 되는데, 가격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이처럼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단순물가지수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품목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단순물가지수로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가격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체감 물가에 근접한 결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 품목별 가중치를 가격지수에 곱한 후 합하여 얻어지는 값을 가중물가지수라고 한다. 가중물가지수는 거래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먼저,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만일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경기판단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 증가에 의하여 상승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 수요 감소로 하락한다.

또한 물가지수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다룰 때 종종 현재의 금액을 과거 어느 시점(T년도)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물가지수가 이용된다. 현재의 금액을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 비율로 나누어 과거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다.

$$T\text{년도 금액} = \text{현재 금액} \div \frac{\text{현재 물가지수}}{T\text{년도 물가지수}}$$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데, 원래의 통계치인 ‘현재 금액’은 명목 가치에, 환산하여 얻어지는 통계치인 ‘T년도 금액’은 실질 가치에 해당한다.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다. 이때 어떤 품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상승의 현실로 다가오지만 기업에게는

생산원가의 직접적인 인상 요인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철판 가격의 인상은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 생산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된다.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경유는 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보다 훨씬 크다. 반면, 채소는 가게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커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생산자물가지수에서보다 크다. 이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큰 품목일수록 가중치가 큰 데 비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도시기계 소비 지출액 기준이므로 소비 지출액이 큰 품목의 가중치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두 지수에서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내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 판매 단계의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단계의 소매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된다.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는 시장 변화의 영향이 곧바로 파급되지만,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몇 차례의 가공 단계를 거쳐 소비재로 만들어진 후에야 그 영향이 도달하게 되므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앞서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서 생산자물가지수를 이해하기도 한다.

38.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물가와 물가지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②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③ 물가지수의 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④ 물가지수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⑤ 물가지수와 경기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9.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군.
- ② 물가지수는 시장의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군.
- ③ 명목 가치에서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실질 가치를 구할 수 있군.
- ④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같은 소득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겠군.
- ⑤ 현재의 금액을 과거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 현재 물가지수가 과거 물가지수보다 높을수록 환산된 금액이 적어지겠군.

4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가지수를 이용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 ②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 따라 실질 가치를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르다.
- ③ 소비자와 생산자로 대상을 분류하면 보다 쉽게 물가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 ④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군과 생산자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군은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아래 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기준 시점 대비 각 품목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자료이다.			
구분	A	B	C
가격지수	104	110	110
가중치	0.6	0.3	0.1

- ① 품목별 소비 지출액은 A>B>C의 순으로 나타난다.
- ② 단순물가지수를 사용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8이다.
- ③ 단순물가지수에서는 B와 C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전제한다.
- ④ 단순물가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가중물가지수를 사용할 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 ⑤ 가중물가지수를 사용하면 거래 비중이 큰 A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4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음 소식입니다. 올 여름 자연 재해로 인해 농작물의 작황이 나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 ○○ 경제 뉴스 -	

- ①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 ② 다른 조사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면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 ③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므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생산자물가지수에 곧바로 파급될 것이다.
- ④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의 가중치는 다르기 때문에 두 지수의 변동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⑤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 단계의 가격은 소비자 구입 단계의 가격보다 낮으므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을 것이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鷺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喃喃語不休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榆槐老多穴 느릅나무 왜나무 목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곳에 갇들지 않니
 燕子復喃喃 제비 다시 지저귀며
 似與人語酬 사람에게 말하는 듯
 榆穴鶴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槐穴蛇來搜 왜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쩔렷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唐楸)*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찼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족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 그것도 소(沼)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 당추: 고추의 한 종류
- * 도리소반: 둥글게 생긴 작은 밥상
- * 비사리춤: 싸리나무의 껍질
- * 반물치마: 길은 남색 치마
- * 소: 작은 연못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44. ㉠ ~ ㉤ 중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수업 시간에 정약용의 「고시」가 조선 후기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난을 드러낸 작품임을 배웠어. 이 작품에서 ㉠ ‘황새’와 ‘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배 세력을 상징하고, ㉡ ‘제비’는 지배 세력으로부터 착취당하는 백성들을 상징해. ㉢ 피지배층의 고난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는 절박한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어. ㉣ 그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현실에 굴하지 않는 끈끈한 모습을 보여. 이 작품을 통해 ㉤ 작가는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시집살이 노래」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하는 아녀자들의 생활을 진솔하게 표현한 민요이다. 이 작품 속 여인은 대하기 어려운 시집 식구와 과중한 가사 노동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 ① ㉠에서 ‘고추’, ‘당추’와 비교하여 시집살이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군.
- ② ㉡에서 ‘오 리’와 ‘십 리’를 활용하여 감당해야 할 노동이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군.
- ③ ㉢에서 ‘호랑새’와 ‘꾸중새’를 활용하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대하기 힘든 존재로 표현하고 있군.
- ④ ㉣에서 ‘배꽃’과 ‘호박꽃’을 대비하여 초라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군.
- ⑤ ㉤에서 ‘거위’와 ‘오리’에 빗대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